

# 분류기호법에서의 조기성연구\*

남 태 우\*\*

## 목 차

- |                      |                     |
|----------------------|---------------------|
| 1. 서 론               | 4. 주요분류법에서의 조기성의 적용 |
| 2. 문헌분류법에서의 기호법      | 5. 결 론              |
| 2.1 기호법의 특성          | 6. 인용문헌             |
| 3. 분류기호법에서의 조기성      |                     |
| 3.1 조기성의 이론          |                     |
| 3.2 조기성의 유형          |                     |
| 3.3 랭가나단의 유용한 순차의 이론 |                     |

## 1. 서 론

분류는 유사한 사물들을 함께 그룹화하는 행위이다. 분류에 의해 생겨나는 그룹, 또는 류의 모든 구성요소는 다른 류의 구성요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최소한 하나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분류되는 사물들은 구체적인 실체(entity)이거나, 그와 같은 실체에 대한 관념이거나 또는 추상적 개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분류라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개념, 즉 사물의 성질 그리고 사물에 의하여 또는 사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조작과 활동을 그룹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행위에 대해 분류학자로서 Ranganathan은 분류의 3단계이론을 구체화 시키고 있는데, 이른바 아이디어단계(idea plane), 언어단계(verbalplane), 기호단계(notational plane)이다.

\* 이 논문은 1991학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헌분류법에 있어서는 모든 주제영역을 취급하게 된다. 주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조직되거나 체계화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식 또는 인간의 사상을 분류하는 문헌분류의 기본적인 작업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부터 이루어진다. 분류에 있어서 아이디어나 개념을 표현하는데 있어 언어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어를 기호로 대체하게 된다. 기호단계는 이와같이 아이디어나 개념 또한 이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계, 즉 아이디어단계와 언어단계의 결과를 기호로 변환시키는 단계이다.

결국 기호단계는 아이디어단계의 결정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단계와 기호단계는 주종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주제나 패시등의 순차도 아이디어 단계에서 결정되며, 기호단계는 이러한 순서를 기호화하여 표현하는것이다. 따라서 기호단계는 분류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언어개념 대신에 부호로 나타내는 마지막 단계인 것이다. 훌륭한 분류법의 창안은 아이디어를 기호단계로 변환시키는데 그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은 대체어가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이들의 기호가 이용자나 정보센터의 경영에 공히 이용가능성이 높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호의 인지성이 높아야 하며, 또한 조기성이 풍부하여야 함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분류기호가 가져야할 많은 요소중 하나인 조기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 2. 문헌분류법에서의 기호법

배열상의 유용한 순서는 순차를 나타내는 기호법의 배정에 의해 결정된다. 분류언어는 자연어와 기계어간에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즉 부호화 하는 일이 분류언어를 원조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주지한바 처럼 분류어는 전문용어에서 사용되는 분명하게 제시되는 인조어이다. 문헌분류법에서는 단어는 개념을 의미하는데 사용되며, 기호법은 개념들의 계층화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Ranganathan은 3개의 수준, 즉 아이디어단계(idea plane), 언어단계(verbalplane), 기호단계(notation plane)로 분류이론을 규정화 하였다(Ranganathan 1967, 327). 이것을 동식화시켜 보면 분류 = 아이디어 언어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다(Matthews

1980, 39). 그는 1944년에 이러한 3단계 구분을 착안해 내고 각 단계의 작업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또한 그와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는 각 단계에 대하여 아이디어단계는 류(class), 언어단계는 주제(subject), 기호단계에서는 분류기호(class number)등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류와 주제 그리고 분류기호는 결국 작업의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3단계의 작업으로 이루어 지기는 하지만, 각 단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갖고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은 사고나 회상, 상상등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주로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아이디어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아이디어단계에서 모든 개념은 이를 나타내는 용어나 기호와는 독립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문헌분류법에서는 모든 주제영역을 취급하게 된다. 주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조직되거나 체계화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식 또는 인간의 사상을 분류하는 문헌분류의 기본적인 작업은 아이디어단계에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단계는 각 주제가 기본주제로 분석되어 그 일반적 구조가 설계되고, 각 주제사이의 관계와 순서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아이디어단계의 작업은 최고의 것이지만 (Ranganathan 1967, 335), 아이디어단계 자체는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분류표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단어와 분류기호 뒤에 잠적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단어나 기호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에 의해 창조된 아이디어는 음성언어와 기록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전달된다. 이러한 언어의 개발능력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언어단계는 개념을 자연어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즉 아이디어단계에서 발견된 아이디어나 주제에 대하여 명명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자연어는 아이디어 보다도 개발속도가 느리기 마련이다. 그 결과 어느 경우에는 특정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동음이의어(homonym), 동의어(synonym)가 존재하기도 한다. 어떤 분류법에서는 자연어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용어다음에 주석을 다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판마다 류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표준용어의 결여로 이

러한 현상은 분류작업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다. 결국 아이디어단계에서 형성된 아이디어나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단계에 있어서는 이를 정확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한 최선의 표준화된 전문용어의 개발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고 하겠다.

분류에 있어서 아이디어나 개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어를 부호로 변환시켜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부호는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된다. 기호단계는 이와같이 아이디어나 개념 또는 이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기호로 표현하는 단계, 즉 아이디어단계와 언어단계의 작업결과를 기호로 변환시키는 단계인 것이다. 특히 문헌분류법에 있어서는 문헌의 배열순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서수로 된 인조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분류언어라고 한다. 분류언어는 분류학자에 의하여 통제된 통제언어로서 어떤 주제나 그 주제를 취급하고 있는 문헌을 배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호단계는 아이디어와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일단의 서수와 이러한 서수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 개발되어야 한다.

각 아이디어나 주제가 서수에 의하여 표현되도록 하는 이유는 이를 취급하는 문헌을 취하여 이용한 후 이를 원래의 고유한 위치에 되돌려 보내는 작업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호화의 아이디어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각 주제의 정확한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호법의 개념은 주제를 표현하는 서수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기호법의 개념으로 부터 분류표의 기호체계가 생겨난다. 기호체계는 분류표의 류나 그 구성요소를 표현하는 서수체계인 것이다(Ranganathan 1967, 72).

결국 기호단계는 아이디어단계의 결정을 구현시키는 단계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단계와 기호단계는 주종관계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즉 주제나 패싯(facet) 등의 순서도 아이디어단계에서 결정되며, 기호단계는 이러한 순서를 기호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와같은 Ranganathan의 논리는 Bliss의 "지식의 조직화(Bliss 1939)이론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는 일반적인 서지분류표를 체계화 하는데 있어서 1단계는 다섯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 1) 지식의 일반적 조직화에 대한 연관성, 주구분, 조합에 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체적 개요(general synopsis)
- 2) 대체적개요에 연관된 주류표

3) 간략하게 언급된 기호법 및 조기성

4) 개발된 체계적 표

5) 가장 중요한 선택조항(Bliss 1939, 74) 등의 설비조항인데, 분류의 개요는 류별로서 지식의 주제문제를 취급하는 분류표를 작성하거나, 조합이나 병치에서 또한 조합되는 동안 세분에서 분석되는 지식의 체계적 조직이다. 환언하면 개요란 개념의 체계, 지식의 분야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로서 Ranganathan의 언어단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Bliss의 “두번째 단계는 주류표를 작성하는 것(Bliss 1939, 75)인데 이는 Ranganathan의 언어단계에 해당되며,” 3단계는 표에 응용하기 위해 기호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Ranganathan의 기호단계와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분류의 최종단계는 주제를 기호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 일련의 분류작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주제를 기호로 표현하는 단계인 기호단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류기호는 분류의 류, 강, 목의 명칭을 상징하는 기호계열이다. 기호는 분류표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도구이다. 그러므로 기호법이 기호의 논리적 범위 또는 발전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문헌분류표에서 기호는 문헌의 주제 또는 형식을 상징하는 대체적 부호이다. 그래서 기호란 문헌분류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며, 기호가 없이는 문헌에 대한 분류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분류가 라이브러리언십(librarianship)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호는 실제적인 문헌분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Phillips 1961, 40)라는 논리나, Wynar의 “문헌분류표에서 특정하게 구분되어 배열된 주제의 항목, 즉 류, 강, 목, 세목등의 분류명사를 기호화한 것이다. 따라서 분류기호는 분류체계중 특정주제를 확인하고 서가상 혹은 목록기입상 자료를 명확하게 배열할 수 있도록 모든 명사의 논리적 순서를 간략하게 표현한 부호이며, 기호라고 할 수 있다(Wynar 1980, 399)라는 견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결국 분류체계의 구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자 또는 숫자를 별개로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주제를 표현하는 부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Ranganathan은 기호법을 “분류표에서 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서수체계

(Ranganathan 1967, 232)로 인식하고 있으며, Richardson은 “축약적 기호(short-hand sign)(Kumar 1981, 127)로 보고 있다. 이 정의는 적절치 못한 전통적 정의에 불과하다. 즉 Ranganathan이 인식한 분류의 3단계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보지않고, 부수적인 그리고 하찮은 대응어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는 달리 Bliss는 기호법이란 용어 또는 계열의 일부 또는 사물의 체계를 의미한 것으로서 어떤 순차에서 기호 및 부호의 체계(Bliss 1939, 47)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분류를 위해서는 기호법은 표나 서가상에서 체계적 순차를 유지하거나 이러한 순차에서 소장위치에 대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호법은 분류순 그 자체에 대해 상관적, 보완적, 또는 부수적인 것이다. 분류순은 좋은 삶든간에 사물의 실제순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기호법은 이러한 분류순을 유지 및 기구화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 2.1 기호법의 특성

분류의 유일한 목적은 주제를 유용한 순서로 배열하는데 있다. 이러한 순차를 결정하는 것은 주제 자체의 연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부호에 의해 연구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Vickery에 의해 정의된 "기호법은 분류순을 유지시키거나 기구화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호체계는 순전히 정상적인 개념적 사고에 부속된 것은 아니다(Vickery 1952, 14)라는 논리와 동일한 것이다.

기호는 단어, 패턴, 그림, 모델 또는 그 밖의 어느 것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임의적 기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부호의 사용없이 인간의 사상을 전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특히 지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중에서 지식전체를 분류화하는 데에서 분류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에 목적을 둔 부호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모든 사상의 개별적 대상은 유일하고 독자적인 부호체계를 원하기 때문에 정밀한 정확성은 얻기 어렵다. 분류법에서 기호법의 목적은 "정선된 배열 순서를 보여주는데 있으며, 순서를 유지하는데 간략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Maltby 1978, 73).

분류체계에서 기호의 사용을 고려해 볼 때 체계내에서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능을 가진다(Vickery 1952, 15-16).

- 1) 기호법의 부호는 반드시 지시의 주제어이어야 한다.
- 2) 전체표 중에 각 용어들을 배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 3) 분류용어는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주제간의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상기의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제1의 방법은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호를 함께 묶는 방식으로 Cutter가 호칭한 것처럼 연계법(syndesis)인데(Cutter 1904, 23), 여기에서는 두가지 상이한 방식이 있다. 즉 병렬에 의한 부호의 묶음, 또는 제 3의 부호의 원조를 받는 일이며, 제 2의 방법은 부호의 패턴과 그들이 표현하는 개념의 패턴간의 대응 또는 유사성으로 부호를 구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관련주제의 탐색에 유사한 부호를 탐색하는 일을 감소시키게 하는 방식이다. 환언하면 기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수행하는 일이다. 1) 용어를 표현하는 것, 2) 다른 용어의 다수 중에서 배정시키는 일, 3) 부호화된 용어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겠다(Vickery 1956, 73). 따라서 분류기호란 서지분류 및 서가분류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기 위해 개념들의 계층화를 위하여 주제를 나타내는 대응어, 즉 유, 강, 목의 계층화를 위한 일련의 분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기호법의 목적에 대해 여러학자들이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몇 학자들의 논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류에서 사용되는 기호법을 보조적 장치로서 인식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Sayers'는 문헌의 주제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기호법의 목적은 정선된 배열의 체계를 보여 주거나 순서의 유지를 간략화하는데 있다라는 논리이다(Maltby 1978, 73). 기호의 목적은 이렇지만, 기호법이 단순히 용어 대신에 표현되는 부호라서 용어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니며, 기호법은 체계적 배열에서 반드시 필수적 보조장치로 인식하고 있다. Bliss 또한 기호법을 보조적 장치(subsidiary device)로서 보고 있으며, Dutta 역시 기호법을 문헌분류법의 보조적 장치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호법의 목적은 '우선순의 기구화'로 보고 있다. 또한 문헌분류법은 기호법이 없이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문헌분류의

기초로서 기호법을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Dutta 1978, 69).

이처럼 기호법을 보조적장치로 보고 있는 견해와는 달리 Kumar의 이론이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그는 기호법을 “문헌분류를 위한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기호는 용어를 위한 부호로서 제공되는 것이며, 확실히 문헌분류에서 중요하지만, 용어 그 자체보다는 중요하지 않다(Kumar 1981, 127)는 것이다. 이 이론 역시 전자의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876년 DDC의 출현이래 기호법은 전체적으로 분류에서 그 중요성의 상당부분이 분류자 및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분류학자와 분류가도 기호법에 지나친 주의력을 기울려서 마치 기호법이 분류분야에서 증대한 연구분야처럼 확장되어 분류법의 기초적 체계에 대한 너무 지나친 논쟁거리가 되었다(Kumar 1981, 127-128). Bliss도 이러한 측면에 대해 “사서들은 분류표나 목록카드상에서 맨처음 기호가 오는 것으로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 기호법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분류가 중요한 일이란 것은 사실이지만, 봉사적 측면에서 기호법은 분류를 손상시킬지언정 분류표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Bliss 1939, 47-48)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문헌분류이론에 연관된 근본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그래서 분류법의 성장 및 발전이 저해되었다(Kumar 1981, 128)고 혹독하게 비평하고 있다. 이것은 Bliss가 기호법은 부차적인 것으로 정의한 것과는 배치된 것이며, 또한 문헌의 주제를 병치와 순서에 관한 결정을 내린뒤에 기호를 추가하는 연속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수용될 수 없는 논리이다.

상기의 Bliss이론중 ‘분류표의 손상’을 피하고자 한다면 기호의 속성과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호사용의 편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과 분류표에 갖추어 져야 할 모든 류에는 유일한 기호가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집단에서는 다음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즉 어떤 부호를 사용할 것인가, 기호가 계층적으로 되도록 해야 하는가, 기호가 조기성을 갖도록 해야 하는가, 동일한 류에 대해서 선택적인 위치를 허용할 것인가(Buchanan 1979, 74)등이 고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기호법의 주목적은 문헌분류법내에서 우선순의 기구화 (mechanization of pref-



erred order)이다. 순서는 최초로 결정되는 단계이다. 아직까지 기호법이 없는 분류법은 전혀 응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기호법이 없는 순서는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 뿐이기 때문이다. Ranganathan에 의하면 기호법을 “기호체계의 일원으로 형성되는 숫자이다(Ranganathan 1967, 232)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은 주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그래서 연속적인 특성의 규칙에 근거하여 유용한 인접순에 의해 배열하기를 원한다. 또한 배열의 기구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기호적 체계의 원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알파벳순 체계는 이러한 목적에 부적합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이다(Kumar 1981, 128).

- 1) 관련주제에 관한 문헌의 알파벳순은 분산의 결과로서 부적절하다.
- 2) 주제명이 불안정하다.
- 3) 주제명이 유사어와 동음이의어 때문에 유일하지 못하다.
- 4) 주제명이 다양한 언어로 각기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 부적합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는 기호법이 우선순의 기구화라는 측면에서 갖는 기능에 대한 여러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Syers' 는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호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1) 간략성, 2) 단순성(말하기, 읽기, 쓰기, 타이프하는데 용이하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분류표에서 분명하게 주제의 순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계층적 표현력, 5) 수용성, 6) 조기성, 7) 패싯(facet)의 매변화 및 상관계를 충족시키도록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다(Maltby 1978, 74). 이와 같은 Sayers' 견해와 유사한 이론을 가진 분류학자들은 Phillips(Phillips 1961, 50), Mills(Mills 1962, 38-52), Vickery(Vickery 1956, 78-82), Dutta(Dutta 1978, 72-79), Coates(Coates 1953, 52-54), Wynar(Wynar1980, 399), Herdman & Osborn(Herdman 1978, 4-9), Metcalfe(Metcalfe 1959, 18-20)등이 거의 유사하게 기호법의 구비조건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Ranganathan의 견해도 대동소이한데 그가 열거한 기호법의 조건을 보면 유

일성, 간략성 및 표현력, 속기력, 발음성, 블럭구축(block formation : 다양한 유형의 부호 또는 공간의 이용으로 블럭부호내에서 긴 분류번호를 나누는 것),패싱구축등이다 (Ranganathan 1967, 228-231). 그러나 Ranganathan은 기호법의 특성에 대해서는 상기의 학자들과는 달리 매우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양질의 것은 필요하며, 바람직하다는 것은 임시 또는 영구적 이용 및 다양한 이용자층에 달려있다는 이론이다.

### 3. 분류기호법에서의 조기성

#### 3.1 조기성의 이론

전장에서 기술한바 처럼 기호법의 특성에 대해 이론을 전개하는 학자들 모두는 그 조기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기호 체계속에 조기법을 포함시키면 검색할 때 추리를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조기법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이용한 분류구조일 수록 조기성이 풍부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조기성이 풍부한 분류구조에서는 분류목록을 이용할 때 목록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의 주제를 추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호법에 있어서의 조기성을 어원적 측면에서 규명해 보면, 조기법(mnemonics)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mnemonikos' 로 '기억하는 것' (to remember) 을 의미한다(OED 1989; Webster 1969). 사전적 의미로는 "기억을 돕기위한 어떤 장치(any device for aiding the memory)로서 사용되고 있으며(Britannica 1988), 기호법에서는 기억을 돕는 기술로서 어떤 사실이나 숫자 혹은 일련의 단절된 용어나 수치를 기억해 내는 방식이다(Ranganathan 1967, 293). 그렇다면 조기성이 갖는 순수한 사전적 의미는 기억을 돕기위한 제 장치적 요소(문자, 숫자, 그림, 도표, 부호, 약호등)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의미로서 실용성을 우리들 생활의 여러 단면에서 목격되거나 활용되어 지는 인지작용이라고 하겠다. 만일 일관된 표현을 고수함으로써 더 중요한 필수적 요건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분류번호내에서 특정개념(혹은 구성요소 중의 하

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진 기호 혹은 기호군들은 그들 안에서 표현되어진 개념을 갖는 모든 분류번호안에서 동일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의 기호법은 조기법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Sayers' 는 아주 착이 좋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지만 분류자에게 이러한 장치가 있는 분류기호법에서는 매우 총괄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조기성이다. 기억을 돕고 표나 색인을 참조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그는 조기성기호를 “주제가 분류표상에 나타날 때마다 동일한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기성 기호는 이러한 모든 주제나 개념을 나타내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많은 부분을 반복해서 표현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한 문자 또는 숫자로 일정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한다(Maltby 1978, 84)라는 견해이며, Buchanan 역시 조기성 기호에 대해 “동일한 부호는 그것이 어떠한 전후관계에서 나타내더라도 항상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의 부호는 쉽사리 그 개념을 연상하게 될 것이며, 또한 기억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류의 조기성은 분류표의 구조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 조기법(systematic mnemonics)이라고 한다(Buchanan 1979, 78-79). 상기의 두사람의 정의는 결국 동일한 개념을 지닌 용어는 분류표상의 어느곳에 응용되든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여 기억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DDC 초판의 서문에서 "표의 이용자들은 분류시에 수백 곳에서 조기성의 원리를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Users of the scheme will notice this mnemonic principle in several hundred places in the classification)라고 강조하고 있다(Dewey 1876, 5). 이것이 19판에서는 “상이한 주제분야에서라도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는 것(Dewey 1979, ixxx)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법에 대해 Bliss는 그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해 주고 있다(Bliss 1939, 58-59). 일종의 상징적 언어로서 기호법은 광범위하게 의미의 기억에 의존한다. 새로운 언어를 읽고 쓰는 것을 학습할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단어와 그들의 의미를 배우며, 점점 더 많은 양의 단어와 의미들을 기억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들은 비록 그들이 목록, 서가목록, 그리고

분류표에 부가된 색인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류의 순서를 익히며,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조기성 체계, 즉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상징성에 대한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근거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기성 기호란 '기억을 돕는 성질'이란 본질적인 의미로서 분류체계에서 동일주제 혹은 개념이 어느곳에 나타나든지 동일한 기호로 표현되도록 하여 조기성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부연하면 기호법의 조기성은 분류체계에 주제 혹은 개념을 표현할 때 이들이 어느곳에 적용되든지 동일한 기호로 표현하여 기억을 돕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은 조기성의 개념은 대부분의 분류표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기호의 표현법에 관련된 조기법을 포함하는 협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으며, 기호 자체의 성격까지 포함한 정의는 "기억을 쉽게 해 주는 기호자체의 성질 즉 기호를 기억하기 쉽게 해주는 속성(Ohdedar & Sengupta 1977, 97)이라고 하고 있는데, 광의의 측면에서 보면 기호의 간결성, 단순성 등이 조기성의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조기성의 가치는 기억을 촉진시켜주는 기호법의 자산(Ohdedar & Sengupta 1977,97; Mann 1943, 53)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조기성의 원리를 적용시키므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Subramanyam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열거해 주고 있다(Subramanyam 1936, 16).

- 1) 문헌을 위한 분류번호 전개시에 분류자의 기억을 돕는다.
- 2) 분류표와 색인에 대한 참조표시를 감소시켜 준다.
- 3) 분류표의 규모(외형적 부피)를 줄여 줄 수 있다.
- 4) 유사한 동위류에서 구분의 열거시에 일관성 있는 순서를 촉진시켜 준다.

또한 Kumar도 기호의 조기성을 채용하여 얻을 수 있는 요소를 몇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Kumar 1981, 163-164).

- 1) 분류작업시 분류자의 기억을 돕는다.
- 2) 색인과 분류표를 참조하는 일을 감소시켜 준다.
- 3) 분류표의 양을 줄여 준다.
- 4) 유사 주제에서 일관된 배열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같이 Subramanyam과 Kumar가 제시한 조기성을 분류표에 채용할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은 동일하지만 이외에도 Foskett, Raju, Phillips등이 제시한 조기법의 기능도 대동소이하다(Foskett 1977, 193; Raju 1978, 3-12; Phillips 1961, 49).

이러한 조기법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론적 입장을 갖는 학자들도 있다. 즉 이용자에게 제한된 가치를 갖는 것에 대해 Buchanan은 기호의 기억가능성은 그 중요성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다(Buchanan 1979, 78). 왜냐하면 결국 기호는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또한 Mills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Mills 1961, 47), Foskett은 두가지 이유로서 조기성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1) 이용자는 조기성이 '자신의 기억을 도와 주는것'으로 인식하여 분류번호를 찾지 않는다는 점과, 2) 특수분류표를 사용하는 분류자는 분류표의 조기성 사용유무와는 관계없이 상당량의 분류번호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Foskett 1977, 193).

상기의 이러한 논리는 조기성에 대한 기능 중 제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가능한 소극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있는 대부분의 분류표는 기호의 조기성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 이용자측면보다 분류자, 분류학자에게 효용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또는 기호법에 있어서 본질적인 자산이 아닐지라도 그 중요성은 대부분의 분류학자 및 분류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3.2 조기성의 유형

분류기호법에서의 조기성은 '기억을 돕는 성질' 이란 본질적인 의미로서 분류체계에서는 동일주제 혹은 개념을 표현할 때 이들이 어느 곳에 적용되든 동일한 기호로 표현하여 사용하기 용이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조기성에 대해 분류학자 마다 각기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기성의 유형을 가장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는 Ranganathan이 제시한 이론을 살펴보면 기호법에서 가능한 조기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Ranganathan 1967, 294).

- 1) 문자적 조기법(Alphabetical or Verbal Mnemonics)
- 2) 일정적 조기법(Scheduled Mnemonics)
- 3) 체계적 조기법(Systematic Mnemonics)
- 4) 동종적 조기법(Seminal Mnemonics)

이러한 조기법의 유형화에 대해 인도계열의 분류학자들인 Subramanyam, Kumar, Rahman, Sachdeva 등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Subramanyam 1976, 16; Kumar 1981, 164; Rahman 1962, 1-14; Sachdeva 1975, 132-139). 이들이 제시한 4가지 조기법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Sachdeva는 알파벳 조기법을 문자적 조기법(verbal mnemonics)으로 호칭하면서 “류 혹은 하위류를 위한 부호로서 기호법에서 문자를 사용한 것을 말하며, 그래서 문자적 조기법은 첫 문자 또는 명칭에서 처음의 몇 문자에 의해 그 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 조기법은 물론 문자적 조기법을 생산하는 알파벳 부호의 사용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종종 문자적 조기법(literal mnemonics)이라고도 한다(Sachdeva 1975, 133)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알파벳이나 문자는 동일한 개념이지만, 그 언어적 사용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자적 조기법은 문자(verbal or literal)가 분류기호로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개념 혹은 그 구성요소 중의 하나를 첫자 혹은 처음의 몇자를 해당주제의 기호로 채용하는 분류법에서 볼 수 있는 조기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A는 Atom을 상징하고, B는 Ball을, C는 Car를 나타내는 현상이 문자적 조기법이다. 따라서 알파벳 조기성은 오직 독립개념들의 어떤 특성을 기호로 한 배열이 알파벳 배열보다 유용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한다. 그리하여 Ranganathan도 “알파벳 조기법은 알파벳 순서보다 더 유용한 순서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절되어야 한다(Ranganathan 1967, 295)는 논리이다. 그의 CC에서도 문학내 동일저자의 작품이나 주로 고유명사, 상품명, 국제적 통용의 기술전문용어 등의 배열에서 알파벳 조기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즉 이용자가 상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또 주제들을 나열할 때 나열되는 주제들의 논리적 배열보다는 자모순 배열이 더 도움이 될 때 알파벳 조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anganathan과 그를 추종하는 인도계열의 학자들 외에 Foskett도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Foskett 1977, 193).

이러한 문자적 조기법을 최대한으로 적용한 분류법은 LCC인데, LCC에서는 보다 유용하고 파생적 체계를 제공해 주는 특성을 기반으로 숫자보다 알파벳을 우선 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알파벳화를 근거로 한 영어단어를 과중하게 사용함으로써 LCC의 국제적 이용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UDC는 알파벳순에 의한 장치의 사용을 좀 더 자제하고 있으며, CC는 더욱 더 그러하다. UDC와 CC의 차이를 보면 문학에서의 저자는 UDC에서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있는 반면에, CC에서는 그들의 출생년도를 특징으로 하여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드라마, 소설, 다른 유형의 문학작품에서의 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UDC에서는 연속간행물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지만, CC에서는 그들을 출생국가별로 그룹을 짓고 각 시대의 시작년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국가군을 연대별 장치로 배열하고 있다.

분류표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기호로 표기될 때 그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주제에서는 어떤 주제에서나 동일한 기호로 표기되면 일정적 조기법(Scheduledmnemonics)을 적용하는 것이 된다. Ranganathan에 의하면 “분류표는 어떤 주제이든 간에 동일한 독립개념(isolate idea)이나 동위독립개념(array isolate idea)을 동일 부호 또는 부호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Ranganathan 1967, 298)는 것인데, 분류표의 강(division), 조기표(table) 부분의 리스트에 의존한 조기법이다. 즉 분류표에 조기성을 지닌 어떤 일정적 조기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하여 표의 전개에 조기성이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적 조기법은 분류표가 채택하고 있는 조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어떤 주제나 형식이 어디에 나타나든 동일한 기호로 표현되어 분류자가 이 기호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분류체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류기호를 합

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분류체계에서는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분류체계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 개념이 어디에 있던 동일한 기호를 가지고 다른개념과 쉽게 합성시킬 수 있으며, 기억하기 용이한 조기법이다.

현대 주요 분류법들은 이 조기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류표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정적 조기법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분류표 작성시 동일한 기호에는 가능한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여 표 내에 고정적으로 기호법을 설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문헌의 형식, 특성, 지리적 요인 등에 따라 주제의 공통적 성질을 추출하여 분류자가 각 주제의 전부 혹은 일부에 필요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조기성 기호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Bliss는 고정식 조기법(constant mnemonics)과 가변식 조기법(variable mnemonic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배열에 있어서 고정식 조기법은 자동적으로 일관성 있는 순차를 만들게 되는데(Kumar 1981, 166), 그것은 표에 열거된 단위 개념들의 순차에 따라서 그와 똑같은 서열로 분류되는 주제들의 순차가 정해지는 까닭이다.

Foskett은 동일한 기호가 나타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을 의미할 때 체계적 조기법(systematic mnemonics)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데(Foskett 1982, 192), 이 체계적(systematic)이란 용어는 Ranganathan이 말하고 있는 일정적(scheduled)이란 의미와 동일한 것이다.

DDC의 표준세구분(standard subdivision)을 비롯한 지리구분, 시대구분 등은 분명히 자료의 형식에 대한 구분, 지리상의 구분, 년대상의 구분 등을 나타내는 기호들을 미리 표에 열거해 놓고 동일한 주제가 나타날 때 마다 동일 기호를 사용하므로써 보장되는 고정식 조기법이지, 그것이 반드시 체계적 혹은 논리적 순차를 만들어 내는 성질을 갖춘 조기법은 아니다.

분류법의 체계에서 이러한 고정식 조기법을 적용시키므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Maltby 1978, 84). 1) 반복해서 사용되는 기호법에 의하여 분류자가 신속하게 분류표에 보다 용이하게 익숙해질 수 있으며, 2) 분류표의 외형적 부피를 감소 시키고, 분류표 조직을 단순, 간결하게 하여 분류표의 이해 및 기억을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문헌분류의 기호법에서 체계적 조기법(systematic mnemonics)은 동위류상에 주어지는 기호들을 논리적인 순차로 배열하는 동위류상의 개념들의 순차와 병행하여 나가도록 부여하였을 때 해당되는 조기법이다. 한 동위류 내의 독립개념들을 유용한 배열순서의 원칙에 따라서 배열함을 의미한다. 즉 개개의 독립개념들을 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순서체제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체계적 조기법을 적용한 분류표에서 후술될 3.3 유용한 순차의 이론을 응용시키므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푸과배열(apupa arrangement; 아푸과배열이란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핵심주제영역을 중심으로 그 양쪽 주변에서 가장 인접하는 순으로 주제를 배열하여 이용시키는 방법이다)을 채용하므로써 체계적인 배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하며, 정신적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다.

셋째, 분류자 및 이용자의 기억적 부담감을 덜게 해주는 장점 등을 지닌 조기법이라 하겠다.

조기법 중 마지막 부분은 동종적 조기법(seminal mnemonics)의 원리이다. 이 조기법에 대한 Ranganathan의 견해는 “분류표는 어떤 주제이든지 동종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기 해서는 한가지 부호나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Ranganathan 1967, 304)는 것이다. 이것은 동종적으로 동등한 개념이 어느 곳에 나타나는지 모든 주제를 동일번호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Kumar의 이론과 동일한 것이다(Kumar 1981, 177).

그렇지만, 이들 개념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심층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동일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적 조기법은 이들이 어디에 나타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사용된 전문용어가 기본류에 상관없이 동종적 동등개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일기호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종적 조기법은 기호의 도움으로 획득되는 분류번호는 계통순서의 원리, 일관성 순서의 원리, 유용한 배열순서의 원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Kumar 1981, 177). 즉 인간은 개념의 모체를 자연어로의 도달단계 이상으로 매우 심도있게 인지할 수는 있어도, 실제 자연어로 근본적 개념 전부를 나타낼 수는 없는데 비해 분류언어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Rahman & Ranganathan 1962, 145).

체계적 조기법에서는 동일개념은 그것이 어느 곳에 나타나든지 동일용어와 동일번호로 나타난다. 또한 발생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개념은 동일한 번호로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이한 장소에서는 상이한 용어를 갖게 된다. 그러나 동종적 조기법은 하나의 개념 혹은 아이디어가 어떤 주제에서 발생하든지 한가지의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는 점에서 일정적 조기법(Scheduled mnemonics)의 특성과 같다. 그러나 일정적 조기법에서의 동일개념은 그것이 어떤 주제에 발생되든지 동일용어, 동일기호로 표현되며, 이미 기호가 분류표에 고정되어 있어서 기계적으로 사용되나 동종적 조기법에서의 동일개념은 그 개념이 발생하는 주제마다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며 동일기호로 나타내지 않고 다른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Ranganathan은 CC를 개발할 당시 '직관적이고 거의 무의식적으로(intuitively and almost unconsciously) 동종적 조기법의 개념을 사용하였다(Kumar 1981, 177). 그의 문헌분류법 입문(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초판에서 그는 'Unscheduled Mnemonics'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Almer와 Wells는 'Seminal mnemonics'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후에 Ranganathan은 'Unscheduled Mnemonics' 대신에 'Seminal mnemonics' 로 대체시켜 사용하고 있다(Kumar 1981, 177-178; Ranganathan 1967, 304).

동종적 동의(seminal equivalences)는 그의 분류삼단계 이론중 아이디어 단계에서 규명될 수 있으며, 그러한 동종적 문자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명치 않으며, 그래서 근본적 동종의 개념들은 종종 상이한 문맥에서 상이한 용어로 나타나곤 한다. 그러므로 분류학자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근본적 동종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충

분한 직관적 통찰력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Kumar도 주제가 분명히 서로 관련성이 없는 듯이 보이는 언어단계에서 인식하는 것은 어려우며, 문자이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인식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통찰하는 마음을 가진 고도의 종합적인 능력 혹은 감각이 발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동종적 조기법 개념의 인식은 초지성적 혹은 직관적 통찰을 통하여 감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고도의 지적 통찰력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조기성인 것이다.

이러한 동종적 조기법은 “조기법의 기호로 형성되는 분류기호는 계통적 순차(filiatory sequence), 또는 유용한 순차(helpful sequence)를 이상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순차도 또한 정교한 수준까지 성취해 낼 수 있다”고 Ranganathan은 주장하고 있다(Ranganathan 1967, 307).

동종적 조기법은 CC에서만 채택 적용시키고 있는 조기성기호라고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이 조기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동종적 개념의 인식이 우선 중요하나, 이러한 개념을 인식하는 것은 전술한 바처럼 예리한 통찰력, 직관력, 초지성적인 감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매우 어려운 인지방법이다. 그러나 동종적 조기법은 분류표를 개발하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 다만 분류학자가 어떤 개념들을 근본적인 동종의 관계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런 다음에 분류표상에 그들을 열거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만일 이러한 과업을 “분류자에게 인계한다면, 분류상 굉장히 많은 불일치성을 양산케 하는 결과를 낳게되는데, 왜냐하면 근본적 동종의 감지에서 주관적이고 개별적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Subramanyam 1936, 18).

상기의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인지한 동종적 조기법의 장단점을 Abdul Rahman 과 T. Ranganathan이 분석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Rahman & Ranganathan 1962, 146).

- 1) 동종적 조기법은 기억을 도와준다.
- 2) 지식의 전영역에 있는 실체가 아니더라도, 그 논리적 연결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3) 표를 잘 이해할 경우에 분류자는 합성된 전개로 유도할 수 있다.

이상은 동종적 조기법이 지닌 장점들인 반면에 이것들에 대한 단점에 대해. Subramanyam은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다(Subramanyam 1936, 18).

- 1) 이 조기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보통 지식의 이해범위 보다 심층적인 것이어서 가르치고 이해시킨다는 점이 어렵고,
- 2) 이 조기법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실체의 매우 깊은 심층을 인지할 수 있는 안목과 직관을 분류자가 소유하여야 하는데, 모든 분류자가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실제로 이러한 난점때문에 분류표에 적용시키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Ranganathan 및 인도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기법에 대한 이론과는 상이한 몇몇 분류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Sayers' 는 조기법의 유형을 체계적 조기법(systematic mnemonics), 문자적 조기법(literal mnemonics), 동종적 조기법(seminal mnemonics)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Maltby 1978, 84-86), 이러한 구분법에 대해 Foskett, Ohdedar, Dutta 등은 그 견해를 일치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Mills는 연관된 순차를 나타낸 것으로서 주로 합성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 조기법과 류를 나타내는 부호가 류 명칭의 머리글자가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기호법에서 문자의 이용에 의존하는 문자적 조기법으로 2구분시키고 있으며(Mills 1962, 47-48), Buchanan도 역시 조기법의 유형을 2가지로 구분짓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Buchanan 1979, 78-79), 부연적 설명이 요구되어 진다. 그는 이론과 동일한 부호는 그것이 어떤 전후관계에서 나타나더라도 항상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호는 쉽사리 그 개념과 연상되며, 또한 기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기성은 분류표의 구조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 조기법(systematic mnemonics)이라고 하며, 알파벳순 기호에 의해서는 2종류의 다른 조기성이 가능하게 되는데, 첫번째는 '문자적 조기법'으로 이것은 일상의 언어로 분류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며, 두번째 종류의 조기성은 즉 기억이 가능한 알파벳순 기호는 Cordonnier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는데(Foskett 1963), 이를 음절식 기호법(syllabic notation)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호를 발음할 수 있도록 자음과 모음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용이하게 기억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음이 가능한 기호를 확대시킨 것을 연상적 조기법(suggestive mnemonics)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알파벳순 기호를 설계할 때 문자의 잘못된 결합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그 결과가 발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고 Buchanan은 경계심을 환기시켜 주고 있기도 하다.

결국 그는 문자적 조기법과 체계적 조기법으로 2구분하고 문자적 조기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 즉 Ranganathan이 이미 그의 알파벳 조기법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시킨다는 입장에서 문자적 조기법을 음절식 조기법으로 명명하고 이를 확대시킨 것을 ‘연상적 조기법’이라는 관념으로 취급하므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Needham은 기억은 조기성에 의해 도울 수 있다. 즉 특정기호에 의해 어떤 개념을 숫자의 일정한 표현인 조기성에 의해 기억을 도울 수 있다(Needham 1971, 131)는 견해인데, 이는 매우 일반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조기법에서 문자적 조기법의 유형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부대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순차나 경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Needham 1971, 131).

한편 Phillips는 조기법에서 “형식구분과 지리공통구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Phillips 1961, 47-50), 이는 Dewey의 견해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Dewey는 조기성의 “대표적인 것으로 문학류와 언어류에서 구분과 형식구분을 들고 있으며, 본표 항목의 세분을 위해 번호조합을 하는 경우에도 조합되는 기호가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므로 조기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Dewey 1971, 79).

이상과 같이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학자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조기법의 유형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의 조기성인 문자적 조기법과 동일개념을 동일기호로 표현하는 일정적 조기법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학자들

마다 조기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조기법의 유형 〉

(M.은 mnemonics의 약자임)

조기법의 종류 학자	동일 개념을 동일 기호로 표현하는 일 정적 조기법 (systematic mnemonics)	문 자 적 조 기 법	동종적 개념 을 동종적 동일기호 표현하는 조기법	유용한 배열 계획에 의한 배열상의 체계 적 조기법
Dewey	nemonics (mnemonics)	x	x	x
Phillips	mnemonics	x	x	x
Bliss	constant M.	Intensive M.	x	x
Bakewell	systematic M.	literal M.	x	x
Langudge	systematic M.	literal M.	x	x
Mills	systematic M.	literal M.	x	x
Buchnam	systematic M.	literal M. suggestive M.	x	x
Ohdedar	systematic M. scheduled M. constant M.	literal M.	seminal M.	x
Dutta	systematic M.	literal M.	seminal M. unscheduled M.	x
Foskett	systematic M.	literal M.	seminal M.	x
Sayers 'and Maltby	systematic M.	literal M.	seminal M.	x
Kumar Ranganathan Suburamanyam Sachdeva	scheduled M.	Alphabetical M. Verbal M.	seminal M.	stematic M.

상기의 표에서 분석된 바처럼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용어상의 차이점들을 살펴 볼 수가 있다. Dewey와 Phillips는 그들이 정의한 조기법인 일정적 조기법을 *nemonics(mnemonics)*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표에 나타난 바처럼 Dewey는 철자법의 개량운동을 주창한 장본인으로서 목음인 'm'의 표기를 생략하고 있다. 한편 DDC 12판 이후 각 판에서 조기성을 나타내는 용어의 변화가 있어 왔는데(12-14판; *nemonics*, 15판; *mnemonic features*, 16판; *mnemonic aids*, 17판; *memory aids*, 18판; *memory aids, mnemonic device*, 19판; *memory aids*), 20판에서는 이에 관련된 용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어정의에서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liss는 동일기호에 의한 조기법을 변화가 없는 경우와 변화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용어를 달리 사용하였으며, 문자적 조기법을 '*intensive mnemonics*'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Bakewell과 Langridg는 일정적 및 문자적 조기법을 각기 '*systematic*'과 '*literal mnemonics*'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Mills도 동일한 개념 및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uchanan은 음절식 기호(*syllabic notation*)를 '*suggestive mnemonics*'라는 용어로 문자적 조기법에 포함시켰으며, Ohdedar등은 '*systematic mnemonics*', '*constant mnemonics*', '*scheduled mnemonics*' 등의 다양한 용어를 모두 일정적 조기법을 표현하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constant mnemonics*'라는 용어는 Bliss의 견해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Dutta는 일정적 조기법을 '*systematic mnemonics*', 문자적 조기법을 '*literal mnemonics*', 동종적 조기법을 '*seminal mnemonics*' 또는 '*unscheduled mnemonics*'라는 용어로 각기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unscheduld mnemonics*'라는 용어가 동종적 조기법을 나타낸것만 제외시키면, Foskett과 Ssyers, Maltbey가 인식한 조기법의 유형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조기법의 유형을 4구분하는 학자들의 견해로서 이들은 Kumar, Ranganathan, Suburamanyam, Sachdeva 등인데, 일정적 조기법을 '*scheduled mnemonics*', 문자적 조기법을 '*alphabetical mnemonics*' 또는

‘verbal mnemonics’, 동종적 조기법을 seminal mnemonics, 체계적 조기법을 ‘systematic mnemonics’ 라는 용어로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Ranganathan 등은 문자적 조기법을 ‘alphabetical mnemonics’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다른 학자들이 ‘systematic mnemonics’ 는 용어로 표현한 일정적 조기법의 개념을 ‘scheduled mnemonics’ 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으며, ‘systematic mnemonics’ 라는 개념을 배열할 때 적합한 배열원리에 따라 개념을 배열하는 체계적 조기법을 표현하고 있다.

### 3.3 랑가나단의 유용한 순차의 이론

주제의 유용한 순차(helpful sequence)에 대한 Bliss의 견해는 관심분야의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의견이 일치된 주제의 순차가 가장 유용한 순차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기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대안적 배열위치와 대안적 표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관심주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류표는 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위류에서 유용한 순차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순차의 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용한 배열순차의 원칙’ (principle for helpful sequence)이란 “류의 동위류내에서 유의 배열순서와 배열된 독립동위류 내에서의 배열된 독립개념은 의도하는 사람의 목적대로 유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즉 배열순차의 유용성이란 분류표의 이용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Ranganathan 1967, 163).

- 1) 분류를 위한 다양한 표에서 다양한 이용자에게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는가,
- 2) 대다수 이용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표준분류표를 계획하는 것이 적절한가, 3) 만일 그렇다면, 표준분류표에서 분류번호와 독립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들 각각의 목적대로 표준분류표를 적용하는데 이용자의 소수집단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동위류 내에서 배열순서의 유용성은 즉 이용자의 대다수를 위한 유용성인데 여기에는 몇가지 원칙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에 대해



Ranganatha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Ranganathan 1967, 183-200).

1) 시대순원리(Principle of later-in Time or Time of Sequence)로서 주제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라면, 이들 주제는 시대순으로 배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진화론적 순차의 원리(Principle of Later-in Evolution)으로 주제가 진화의 여러단계에 속할 경우에는 진화순대로 배열되는 것을 말한다.

3) 공간상 인접의 원리(Principle of Spatial Contiguity)로 주제가 계속적으로 인접된 공간에서 발생할 때에 이들을 인접공간의 순서에 따르는 원칙으로서 이러한 원리의 순서에는 수직선의 원리, 하단원리, 상단원리, 수평적 원리, 좌에서 우에로의 원리, 우에서 좌에로의 원리, 순환적 원리, 시계방향의 원리, 성형원리, 주변에서 중앙집중식 원리, 중앙에서 주변적 원리, 탈위치의 원리 등의 공간적 배열순차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4) 양적 표준의 원리(Principle for Quantitatus Measure)로 주제가 양적 판별을 허용한다면 양적 증가순에 따라 배열되는 원리이다.

5) 복잡성 증가의 원리(Principle of Increasing Complexity)로 주제가 다양하고 복잡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복잡성 증가순에 따라 배열되는 원리이다.

6) 규범적 순차의 원리(Principle of Comonical Sequence)는 주제가 전통적으로 특별한 순서로 채용되었다면, 적용되는 원칙이 없더라도 전통적 배열순서를 따르는 원칙이다.

7) 문헌발행량의 원리(Principle of Literary Warrant)로 어떤 문헌의 주제가 발행되었거나 발행되리라 예견되는 문헌량의 대소에 따라 배열되는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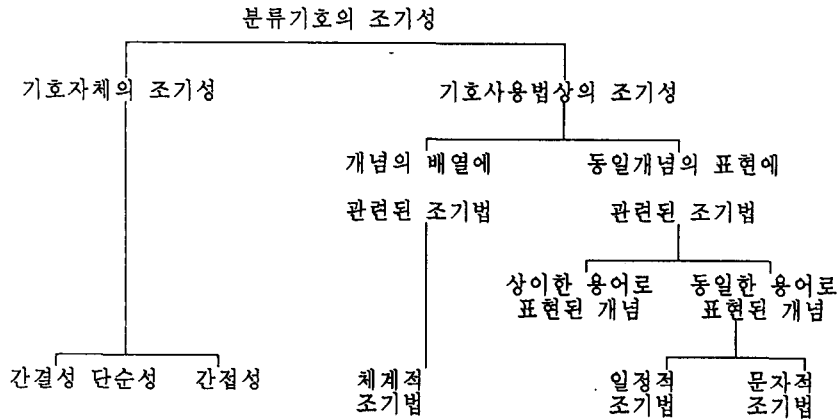
8) 알파벳순 원리(Principle of Alphabetical Sequence)로서 주제에 유용한 배열순이 없을 경우에 이들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여야 한다는 원칙등인데, 7)항목 까지는 체계적 조기법으로 유도하는 안내 원칙을 제시해 준 것이며, 8)항목은 문자적 조기법에 해당되는 원리로서 체계적 조기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차선의 원리이다.

이렇듯 체계적 조기법이란 배열대상의 개념과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가 다같이 병행하여 체계적 혹은 논리적으로 배열될 때 적용되는 조기법이며,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조기성이 체계적 조기법인 것이다.

유용한 순서(helpful sequence)란 무엇인가. 아주 미세한 학문분야일 지라도 다양한 유용한 순서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주제가 어떤 이용자에게는 가장 유용한 순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주제에서는 그 유용성이 덜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해결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대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그들의 특별한 관심주제를 정확하게 검색해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단지 그들은 상위 또는 하위주제명을 원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순서는 주제를 배열한뒤 이용자가 상위 또는 하위의 관점에서 순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특정주제에로 유도하는 것이다. 순서는 그들의 논리적 방법 이전에 관심폭의 분야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시된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의 막연한 의식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류의 접근방법인 아푸파(apupa)배열의 수단으로 만족할 수 있다” (Kumar 1981, 105).

#### 4. 주요분류법에서의 조기성의 적용

본절에서는 이미 조기성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론을 전개시킨 Ranganathan의 조기법의 논리에 입각하여 현대주요분류법 기호에서의 조기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기성을 분류표에 설정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분류편찬시에 어느 부문에 한정해서 표상에 고정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즉 고정식 조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분류자가 분류작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첨가할 수 있는 조기성 기호를 설정해 두는 이른바 가변식 조기법의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는 분류표에 이미 체계를 세워 배열된 데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분류자가 번호조합의 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두가지의 조기성의 적용방법은 현대분류표가 모두채용하고 있다. 이를 다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김성원 1989,15).



기호자체의 조기성은 조기법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류기호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Coates 등이 제시한 기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결성, 단순성, 발음성의 관점에서 한 기호체계가 얼마나 기억하기 쉬운가, 즉 어느정도 기억에 도움을 주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Coates 1957, 53).

간결성(brevity)은 기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호의 자리수에 관련된 것이다. 간결성은 기호체계가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의 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기호의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간결성을 유지하기에는 유리하다. 예컨대 10개의 숫자만을 채용한 기호체계는 11번째 개념을 표현하는데 최소 두자리 기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영문자를 채용한 기호체계는 한자리 기호만으로 26개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 더우기 두자리 기호로 나타낼 경우에는 전자는 ‘10×10’ 즉 100개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그치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26×26’ 즉 676개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어 그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억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번째 요소는 단순성(simplicity)으로 기호가 단순할 수록 기억하기 쉬운 것이므로 기호는 가능한 단순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러한 구성 방법에는 문자, 숫자, 임의부호(arbitrary sign) 또는 이들의 혼합형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호법에는 2가지 기본유형이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 혹은 알파벳 어느 하나로 구성된 순수기호와 두 종류 이상의 기호를 채용한 복합기호인데,이들을 비교해 보면 동일

자리 수의 기호일 경우 순수기호를 기억하기가 용이하다. 기호의 단순성과 관련하여 Coates는 기호구성별로 기억의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을 기억이 용이한 순서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Coates1957, 53-54).

하나의 구분기호를 사용한 기호 33847(62148)

문자를 구분기호로 사용한 기호 33847K62148

순수기호 33847262148

세계의 구분기호를 사용한 기호 3384U2K21P8

상기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단순성에서는 숫자와 구분기호로 소수점(.)만을 채용한 DDC의 기호법이 숫자와 문자, 그리고 구분기호 여러개의 구두점을 채용한 기호법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간결성(brevity)에서는 여러 기호를 채용한 기호법이 DDC의 기호보다 우수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간결성과 단순성은 상호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두 요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분류법 이용자의 수준과 주제의 복잡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호의 기억성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소는 발음성(pronounceability)이다. 기호를 쉽게 발음할 수 있다면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감지한 바와 같이 분명하다. 실제로는 기호의 최소단위를 자음과 모음의 음절을 이루도록 구성하여 발음할 수 있다면, 기억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경우 기호의 최소단위가 자음과 모음의 음절로 구성되므로 기호의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자를 채용한 기호체계에서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발음성을 살린 대표적인 것은 음절식 기호법(syllabic notation)으로서 이는 이미 문자적 조기법에서 상술되었다.

전술한 바같이 Coates가 제시한 3가지 기준에서 DDC 기호자체의 조기성을 분석해 보면 숫자기호와 구분기호의 소수점만을 채용한 DDC의 기호체계는 단순성에서는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개의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략성을 유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DDC 20판을 보면 소수점이하 자리수가 7자리에서 9자리 까지 전개되는 경우가 보조표의 경우 허다하다. 한편 발음성의 측면에서 보면 DDC의 기호는 세째자리 뒤에 소수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식별을 용이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소수점 앞의 기호를 정수로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예컨대 ‘3

00.19' 를 발음할 때 '삼영영점 일구' 로 읽지 않고, '삼백점 일구' 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숫자기호를 정수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은 발음을 쉽게 해주며, DDC 기호체계에서 발음을 쉽게 해주기 위한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DDC의 12판의 Dewey서설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이론들로서 십진법의 단순성은 매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과, 순수기호인 아라비아숫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이와같은 특징들은 UDC와 CC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며, LCC에서는 없는 것들이다.

다음은 기호사용법상이 조기법에서 DDC, CC, LCC의 적용성에 대한 고찰이다. DDC 기호는 숫자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호체계에서 뚜렷한 문자적 조기법은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어학류 400대와 문학류 800대의 자국우선권을 주기 위한 선택적 항목의 경우에는 두문자를 채용하여 기호를 구성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선택적 항목이긴 하지만 이 경우 문자적 조기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본표항목 아래의 배열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자모순 도서기호법으로 세분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두문자를 이용한 문자적 조기법임을 알 수 있다.

#### 001.6424 Program languages and coding

Coding: conversion of natural languages into program languages

Subarrange by name of program language, e.g., FORTRAN

001.6424 F6

상기와 같은 실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숫자기호로 구성된 DDC기호 전체에서 문자적 조기법을 채용할 수는 없으나, 일부 선택적 항목과 문자기호를 채용한 세분항목에서는 문자적 조기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밖의 예로서 아동도서는 'J', 참고도서는 'R' 로 표기한 것은 물론 별치기호의 일종이지만, 또한 문자적 조기법의 응용어라고 하겠다.

LCC의 경우에는 문자적 조기법을 흔치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Geography는 G, Music은 M, Technology는 T와 같이 두문자를 채용한 문자적 조기법에 해당되며, CC에 있어서의 문자적 조기법의 적용은 농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등 몇 곳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J (Agriculture)에서 cultivarnumber는 문자

적 구분법에 의해 취하도록 규칙편에 지시하고 있어서(Ranganathan 1967, 1.85), 이 지시에 따라 벼의 품종인 Akibare는 J381A, Miryang 21ho는 J381M 등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J381A의 A는 Akibare의 첫 자모와 A 자모를 사용하므로서 Akibare를 연상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다.

동종적 초기법(Seminal mnemonics)의 분류체계는 개념이 나타내는 주제에 관계없이 동종적인 개념을 나타내는데 동일한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임을 이미 밝힌바 있다.

Ranganathan은 이러한 동종의 모형을 예로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 여러 형태의 주제에서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 구조 혹은 기능에서의 결합 및 결합의 교정이라는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Ranganathan 1967, 67-68). 생물학에서 이 모형은 그 자체가 형태론, 생리학, 병리학, 치료라는 용어로 표시되며, 사회학에서는 사회구조, 사회활동, 사회병리, 교정으로 나타난다. CC에서는 이 동등한 개념들을

구조와 그 유사물들을 2로

기능과 그 유사물들을 3으로

결합과 그 유사물들을 4로

교정과 그 유사물들을 6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류체계에서 동종적 초기법을 적용하여 동종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어떤 주제에 들어 있든 또 자연어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든지 동일 기호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류표상에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분류대상의 주제가 그 분류표에서 쓰는 모형의 어떤 것으로 인식되면, 분류자의 재량으로 해당하는 기호를 부여하거나 표를 전개할 수 있다.

동종적 초기법은 CC에서만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Ranganathan이 밝히고 있듯이 동종적 초기법이 고대 칼데아(Chaldea)와 인도(Indea)의 신비주의적 전통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Ranganathan 1967, 304)에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인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초지성적 혹은 직관적 통찰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구분(foci, division)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정기적인 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첨부되어 있다(Rnaganathan 1967, 1.32). 또한 Ranganathan 스스로 고백하였고, Kumar 등이 이미 지적했듯이 동종적 조기법의 바탕이 되는 칼테아와 인도의 신비주의적 전통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채용되어 이 조기법의 난해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족할만한 이론적 설명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전면적 채용에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종적 조기법에 관련하여 그 존재를 인식하고 비평한 학자는 많지 않다. Maltby는 동종적 조기법을 시험적 단계의 것으로 인식했지만, 조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개개 분류자로 하여금 분류체계가 제공하지 못한 분류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장치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동종적 조기법은 DDC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동시에 LCC에서도 조기성에 적용되지 못한 CC에서만 유일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분류체계는 동일개념이 어디에 나타나더라도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여 개념을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인 일정적 조기법(scheduled mnemonics)을 DDC에서 채용하고 있는가의 분석이다. DDC에서 그 실례들을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 430 독일어
- 830 독일문학
- 033 독일어 백과사전
- 943 독일역사

상기의 예에서 '3'이라는 숫자는 모두 독일어를 나타내는 공통개념의 조기성을 나타내는 일정적 조기법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예는 DDC에서 상당량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학과 문학류의 조기성에서는 2부터 9까지가 완전한 일정적 조기법을 이루고 있다. 어학류 400대는 각국어에 의하여 구분되고, 문학류 800대의 1차구분도 원저작의 각국어에 의하여 구분되기 때문에 제 2위의 강이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DC에서 채용한 기호법의 조기성 중 최대의 것은 일정적 조기법(scheduled mnemonics)인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류를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호를 결합(number building or synthesis of notation)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한 분류번호에다 분류체계(본표, 보조분류표를 통합)의 다른 부분에서 취한 번호를 첨가한다. 첨가주(add note)는 이 첨가를 지시하는 주이다. DDC 17판까지는 'Divide lik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시주는 분류자가 종종 그 문헌에 정확한 분류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본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기호를 구성하거나 합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심도있는 내용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표에서 이들을 가능하도록 지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구성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4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즉 "1) 표준세구분(standard subdivisions :표 1)에서 합성하는 것, 2) 기타 보조표(other table : 표 2-7)에서 합성하는 것, 3) 본표(schedule)의 다른 부분에서 합성하는 것, 4) 본표에서 첨가표(add table)로 부터 합성하는 방법들이다." 이러한 DDC에서의 일정적 조기법의 유형의 번호조합을 통하여 채용되는데, 즉 첨가주(add notes)에 따라 조합되는 일곱개의 보조표와 본표의 항목, 그리고 보조표와 본표의 항목이 함께 조합되는 것으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본표 항목으로 부터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조기성기호는 특수 보조표(special tables)와 본표 항목으로 나눌 수 있고, 본표 항목으로 부터의 조합은 다시 조합되는 항목의 범위에 따라 전체항목이 합성되는 경우와 일부항목이 합성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DDC의 일정적 조기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7개의 'Tables' (DDC 보조표는 16판까지는 형식구분, 17판에서는 형식구분과 지리구분만이 준비되었으며, 18판 이후 부터 7개의 보조표가 준비된 것이다)로서 본표 항목의 세분에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보조표(auxiliary tables)라고도 호칭되며, 많은 본표 항목들의 세분에 이용될 수 있는 항목들을 모아 별도로 작성해 놓은 것이다. "제 2판에서 최초로 형식구분이 고정된 형태와 순서(9개의 형식구분)로 채용된 이후 개정판마다 그 수와 명칭은 변화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채용되어 왔으며, 20판에서 사용된 보조표의 형태는 18판(1971)이후 부터 'tables'라는 명칭으로 7개의 표가 마련된 것이다."

"18판에서 5개의 새로운 보조표의 설치에 지식계의 성장의 도전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성의 영향인 것이다." 이러한 보조표가 제공해주는 이점들은 다음과 같다(Raju 19



78, 10).

1) 세구분(subdivision)의 단순화 및 용이화 방법

2) 그들의 적용력에서 일치성과 생존력의 추구

3) 고려되어야 할 항목 및 주석으로 부터 주류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므로 항목의 경제성을 추구한다.

CC에서 일정적 조기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본표(Schedules)가 패싯(기본범주)이라고 하는 단위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를 구성하는 기호는 사용될 때마다 어떤 주제에서나 관계없이 동종의 같은 아이디어들을 모두 하나의 기호로 표기하게 되며, 분류대상의 주제들을 분류하였을 때 표에서 열거한 패싯의 순서대로 일관성 있는 배열을 이루게 된다. CC는 이러한 패싯분류식의 특징으로 인하여 조기성 혹은 추리성이 매우 강한 분류법이 되고 있다. 또한 현상의 주제들은 무한에 가깝도록 많을지라도 기본적인 단위아이디어들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Ranganathan은 다섯가지 기본범주라고 가정하였다), CC는 표전체의 분량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CC 제 6판(1960)의 문학류의 표는 반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며, 가장 분량이 많은 의학류의 표는 6.5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DDC는 제 20판(1989)의 경우 문학류의 표는 49페이지에 이르며, 의학류의 표는 무려 104페이지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C는 표전개가 병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주제에는 주제전개를 완전히 전개해 놓고, 주제와 똑같이 전개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완전하게 전개해 놓은 주제분야의 기호를 다른 주제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모든 주제에서 같은 기호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며, 또한 표의 길이를 절약하는 점에서 매우 조기성이 강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 방법은 DDC의 'add note' 방식과 같은 것으로 CC 제 6판의 표는 이와같은 방식의 조기법을 76가지나 활용하고 있다(Ranganathan 1967, 298). 또한 CC는 여러가지 구분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대구분법(geographical device), 주제구분법(subject device), 조기구분법(mnemonic device), 자모구분법(alphabetical device), 이중구분법(superimposition device)이 그것들이다. 공통구분표(schedules of common isolates) 또한 단위아이디어를 기호로

넣어준 표이다(Ranganathan 1967, 1.43-1.48, 2.5).

한편 LCC에서의 일정한 조기법의 적용은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LCC가 갖고 있는 단점 중 조기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LCC는 다른 분류표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조기성, 즉 형식이나 지리, 그 밖의 세목을 나타내기위하여 분류표 전체에 걸쳐 동일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조기성은 갖고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조기법에 대한 분석이다. 체계적 조기법은 적합한 배열원리에 따라 개념이 배열되면,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한 조기법이다(Ranganathan 1967, 301-302)라고 전술한 바와 같다. 즉 동일한 상위개념에 속하는 동위구분체(coordinate isolates)를 배열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배열하고 기호를 배정한 것이 무원칙하게 또는 적합하지 못한 속성을 기준으로 동위구분체를 배열하고 기호를 배정한 경우 보다는 기억하기 쉽다는 것에 근거한 조기성인 것이다. 도서관의 분류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논리적 순차로 일렬로 배열하고 이 배열을 나타내는 데에 어떠한 장애도 허용하지 않은 기호체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체계적 조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분석과 분석주제의 논리적 배열에 있어서 그 논리적 배열을 기호의 표현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류가 분류의 정의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체계적 조기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며, 체계적 조기성도 또한 분류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체계적 조기법은 문헌분류라고 하는 개념 또는 작업에 추가하여 덧붙여 지는 개념이나 작업을 위한 기술이 아니고 문헌분류법 자체가 갖는 성격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체계적 조기법은 말할 것도 없이 랭가나단의 조기법의 이론 중 주제의 논리적 전후관계를 서수적 위치를 지니는 기호의 순차에 의해 추리하게 하는 조기법이다.

CC에서는 이러한 조기법의 응용은 광범위하다. 즉 무려 23종류의 도움이 되는 순차의 원리를 열거하고 있다(Ranganathan 1967, 301). 또한 DDC, LCC등도 주제의 배열 방법에는 실용성을 우위에 두던, 원칙을 우위에 두던 모두 체계적 조기법을 채용하고 있다.

## 5. 결 론

이상과 같이 분류기호법에서의 조기법에 대해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헌분류법에 있어서의 기호법은 아이디어나 개념의 대체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디어단계, 언어단계를 거쳐 기호단계로 변환되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나 개념이 지닌 언어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호로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기호법은 분류표에서 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서수체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호법을 분류법에서는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두 갈래의 시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양자를 접합시킨 중간이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분류표에서 확실하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용어 그 자체보다는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2. 많은 분류학자들에 의하면 기호법의 많은 기능 중 ‘기억을 돕는 성질’이라는 조기성이론을 중요시 하였다. 그것은 기호체계속에 조기법을 적용시키면 검색할 때 추리를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기법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이용한 분류구조일수록 조기성이 풍부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조기성이 풍부한 분류법일수록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의 주제를 추리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3. 이러한 조기법을 분류법에 적용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1) 분류작업시 분류자의 기억을 돕게되며, 2) 색인과 분류표를 참조하는 일을 감소시켜 주며, 3) 분류표의 양을 줄여 주며, 4) 유사주제에서 일관된 배열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등을 수행하게 된다.

4. 이러한 기능을 지닌 조기성의 유형을 Ranganathan등 많은 분류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 류 혹은 하위류를 위한 부호로서 기호법에서 문자를 사용한 문자적 조기법이며, 2) 일정적 조기법으로서 어떤 주제이든 간에 동일한 독립개념이나 동위독립개념을 동일부호 또는 부호군으로 사용하는 조기성 체제로 즉 일정적 조기법은 분류표가 채택하고 있는 조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어떤 주제나 형식이 어디에 나타나든 동일한 기호로 표현되어 분류자가 이 기호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분

류체계에 용이하게 접근하게 해준다. 이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분류작성시 동일한 기호는 가능한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여 표내에 고정적으로 기호법을 설정하는 고정식 조기법과 다른 하나는 문헌의 형식, 특성, 지리적 요인 등에 따라 주제의 공통적 성질을 추출하여 분류자가 각 주제의 전부 혹은 일부에 필요할 때마다 적용되는 가변식 조기법의 방법들이 있다. 3) 체계적 조기법으로서 이것은 동위류상에 주어지는 기호들을 논리적인 순차로 배열하는 동위류상의 개념들의 순차와 병행하여 나가도록 부여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기성이다. 4) 마지막으로 동종적 조기법의 이론이다. 분류표는 어떤 주제가든지 동종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가지 부호나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등한 개념이 어느곳에 나타나든 모든 주제를 동일번호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조기성이론이다.

5. 상기의 유형별 조기성 이론을 LCC, DDC, CC 등 현대의 대표적인 분류법에 대비시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1) 문자적 조기법은 LCC, CC에서만 적용시킨 것만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DDC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 일정적 조기법은 현대 주요분류법들이 이 방법을 가장 광범위 하고 다양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이론으로서 DDC, CC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으나 LCC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기성이다. 3) 체계적 조기법의 응용은 CC에서는 이러한 조기법의 적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류표라고 평가받고 있다. 무려 23종류의 도움이 되는 순차의 원리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LCC, DDC에서의 체계적 조기법은 그분류체계가 실용성에 우위를 두던, 원리를 우위에 두던 모든 분류법은 이 조기법을 적용 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동종적 조기법은 CC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조기법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Ranganathan이 이 조기법은 고대 칼데아(chaldea)와 인도의 신비주의적 전통에 그 기원을 두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론이다.

## 6. 인용문헌

- Bliss, H. E. 1939. *The Organijation of knowlede in libries and the subject-approach to book*, 2nd ed. New York, The H. W. Wilson co.
- Buchanan, B. 1979.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Clive Bingley.
- Coates, E. J. 1957. *Notation in Classification, Proceodings of 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on Classific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 London, Aslib.
- Cutter, C. A. 1904.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GPO.
- Dewey M. 1876.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 Amherst.
- Dewey, M. 197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 Albany, Forest press.
- Dewey, M. 197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9th ed. Albany, Forest press.
- Dutta, D. N. 1978. *Library classification Manual*. Calcutta, The World press.
- Foskett, A. C. 1977. *The Subject to information*, 4th ed. London, Clive Bingley.
- Foskett, D. J. 1963. *Classification and Indexing in the Social Science*. London, Butterworth.
- Herdman, M. M. 1978. *Classification*, 3rd ed. by Rev. J. Osborn. Chicago, ALA.
- Kumar, K.1981.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 Maltby, A. 1978.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5th ed. London, Andre Deutsch.
- Mann, M. 1943.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ALA.
- Matthews, G. O. 1980. *The Influence of Ranganathan on faceted classification*.

- Case Western Reserve Univ.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 Metcalfe, J. 1959. *Subject classifying and Indexing of libraries and literature*. New York, The Scarecrow press.
- Mills, J. 1962. *A Modern outline of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London, Chapman & Hall.
- Needham, C.D. 1971. *Organizing Knowledge in Libraries*. London, Andre Deutsch.
- Ohdedar, A.K. & Sengupta, B. 1977. *Library Classification*, 2nd ed., Calcutta, The World press.
-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1989. Oxford, Clarendon press.
- Phillips, W. H. 1961. *A Prime of book classification*, 5th ed.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
- Rahman, A. & Ranganathan, T. 1962. Array Isolate and Seminal Mnemonics in CC, *Annals of Library Science*, Vol. 9, No. 4.
- Rahman, A. & Ranganathan, T. 1962. Non-Seminal mnemonics, *Annals of library science*, 9
- Raju, A. A. 1978. A Study of Auxilary Schedules in DDC, *Herald of Library Science*, 17.
- Ranganathan, S. R. 1958. Postualational approachnto faceted classification, *Annal of Librart Science*, Vol. 15, No. 5.
- Ranganathan, S. R. 1959. *Element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The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Section of the LA.
- Ranganathan, S. R.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 Sachdeva, N. S. 1975. *Colon classification*.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 Subramanyam, K. 1936. Seminal Mnemonics in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Vol. 3, No. 1.

- Vickery, B.C. 1956. Notational Symbols in classification; part II, Notation as in ordering devic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12, No. 2.
- Vickery, B.C. 1952. Notational symbols in classification, *Th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8, No. 1.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Unabridged*, Rev. ed. 1969. Chicago, R. R. Donnelley & Sons Co.
- Wynar, B. 1980.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6th ed.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 김성원. 1989. DDC기호의 조기성에 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원(미간행 석사 학위논문)